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알리스터 맥그라스 지음 | 박규태 옮김 | 좋은씨앗

종교개혁 5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종교개혁의 영성’을 말한다든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종교개혁이 갖는 의의나 역사, 교리와 신학 혹은 종교개혁이 서구 사회에 미친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종교개혁 400주년을 기념했던 1917년 전후 서구학계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엄청난 연구물이 쏟아져 나와 ‘루터 르네상스’ 혹은 ‘칼빈 르네상스’라 불리기도 했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 1917년 당시는 한국교회가 세계 신학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했고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 또한 미흡했으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의 신학자들이 500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전문분야의 신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특히 고전어나 서양언어에 대한 실력 또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창의적인 신학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출판된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 논저나 역본들은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연원과 그 이후의 발전을 ‘영성’(spirituality)이라는 측면에서 논구한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시대의 영성을 취급한 이 책은 우리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책의 원제목은 ‘새롭게 하는 뿌리들: 종교개혁 영성을 기리며’(Roots That Refresh: A Celebration of Reformation Spirituality)인데, 『종교개혁시대의 영성』으로 번역되었다. 책 제목이 암시하는 바처럼 종교개혁이 교회 �신의 원천이라는 점을 암시하면서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성공회 사제이기도 한 저자는 바르트적인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복음주의자로서 흔히 존 스토틀나 제임스 패커의 뒤를 잇는 복음주의 신학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는 자전적 기록에서 회고하듯이 냉철한 이성뿐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를 알기 위해 고투하면서 그가 역사 신학, 특히 16세기와 관련된 여러 작품을 썼고, 그의 저작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다작(多作) 가운데 수작(秀作)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중 한 권이 바로 『종교개혁시대의 영성』이다.

‘영성’은 이 책의 중요담론인 동시에 우리 시대 신학 담론의 주요어가 되었다. 영성(spirituality)이란 일차적으로 ‘영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 용어를 영적 자질 혹은 영적 특징이란 의미로 이해하거나 중세적 개념에서 수도원적 삶으로 보았으나, 우리 시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영성의 목표는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신앙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에 진정한 경건, 진정한 신앙적 삶을 묻다!

대에는 신앙적 삶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로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적 삶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의 양식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여러 종류의 영성 전통이 있었는데, 리차드 포스터는 기독교 전통에서 영성을 묵상의 영성, 거룩한 삶의 영성, 은사 중심의 영성, 사회정의의 영성, 복음주의 영성,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성육신적 영성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영성의 목표는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신앙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자인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이런 전통을 수용하면서 기독교 영성이란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믿음(교리)과 삶의 전체적인 경험이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이루려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영성 개념을 복음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자는 복음주의 영성의 문제로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를 석명(釋明)하면서 결국 종교개혁 영성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회체신의 뿌리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중세 수도원적인 영성과 종교개혁 영성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중세 수도원적인 영성이란 현

실적 삶으로부터의 구분 혹은 분리를 의미한다. 플라톤적인 이원론에 근거하여 현실세계는 자연의 세계이지만 현실과 격리된 수도원적 삶은 보다 고상한 은총의 세계라는 전제 하에 수도원적인 삶을 이상으로 여겼다. 일상현실로부터의 격리된 삶이 보다 거룩한 삶이며 그것이 사도적 삶(vita apostolica)이라 여겼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기독교적 삶의 현상이 곧 수도원이고 영적 실현의 현상이라고 이해했다. 따라서 종교개혁적 영성은 수도적 은둔이나 그로 인한 수신수덕(修身修德)의 중세적 영성과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종교개혁적 영성은 내면 지향의 축소행위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의 경건이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총체적인 응답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종교개혁 이전의 영성은 집단화된 교회 중심의 영성으로 인간의 완전주의를 최선으로 간주하여 금욕주의, 가난이나 독신 서약, 수도원적 은둔과 수덕주의로 흘러 결국 고행주의로 전락했음을 지적한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은 하나님 중심적이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체험하는 개인적인 영성이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금욕적 고행과 신비적 명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했으나 만족을 얻지 못했고, 성경연구를 통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를 깨달았다. 루터는 복음을 재발견함과 더불어 ‘오직 성경’으로만의 원칙을 주장했다. 그래서 저자는 종교개혁 영성의 특징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성경연구를 통한 자아 갱신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한 거룩한 삶이라고 보았다. 이런 입장은 객관적 계시 곧 성경보다 성령의 내적활동을 우선시하는 신령주이나 재세례파를 배격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것이 이 책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루터의 ‘오직 성경’의 원칙은 칼빈도 마찬가지였다.

성직자가 되거나
수도원에서만 성화를 추구하는 대신
모든 성도들이 받은 소명을 실천함으로
성화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영성을 추구하였다.

결국,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적인 영성 추구로부터
말씀 중심의 영성을 추구한 것이다.

그래서 성직자가 되거나 수도원에서만 성화를 추구하는 대신 모든 성도들이 받은 소명을 실천함으로 성화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영성을 추구하였다. 결국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적인 영성 추구로부터 말씀 중심의 영성을 추구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전념하는 신앙전통을 새롭게 회복하였다. 이 신앙전통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뿌리라는 것이 이 책의 논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제2장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3장과 4장은 이를 상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장들은 이런 주의(主意)를 가지고 이를 삶의 현실에서 서론(緒論)하거나 상론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종교개혁은 과거의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본질이라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정체성과 순전성을 되찾으려는' 시도였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우리

에게 저자는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종교를 순결하고 새롭게 갱신하고, 각자 성경에 있는 그들의 뿌리로 되돌아갔다고 말한다.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중세교회의 신학과 영성에 이의를 제기했고, 칼빈은 자신의 시대에 사도시대의 교회 구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연원로의 회복을 제안했다. 우리 시대의 문제,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쇠신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연원, 곧 종교개혁 영성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결국 맥그라스 박사는 성숙 이원론의 극복을 통해 진정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1년에 쓴 이 책은 오늘의 한국교회에 진정한 경건, 진정한 신앙적 삶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글 | 이상규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이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거쳐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신학대학, 호주신학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사상연구소장, 신학과장, 교무처장, 신학대학장, 부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개혁신학회 회장으로 일하는 한편, 국제신학전문지 *unio cum Christo*의 편집위원으로 있다. 쓴 책으로는 『교회 개혁사』, 『교회개혁과 부흥운동』,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교양으로 읽는 역사』, 『초기 기독교와 로마 사회』 등이 있다.